

잘 나가는 KIA, 첫 4일 휴식 약? 독?

광주 첨단고 볼링 남고부 종합우승 대구시장기 전국대회



서재응



12일 휴식, 13·14·15일은 훈련 11일 두산전 서재응 등 총출동 이르면 16일 윤석민 실전 투입

호랑이 군단에 '낮선 휴식'이 주어진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12일 유니폼을 벗고 봄날의 여유를 즐긴다. 시즌이 한창인 4월 그전에도 금요일에 맞는 '낮선 휴식'은 올 시즌 프로야구의 새로운 풍경이다.

신생팀 NC의 가세로 올 시즌 프로야구는 9구단, 홈수팀 체제로 출범했다. 한 팀은 경기 없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번 주말은 KIA에 찾아온 시즌 첫 휴식이다.

9·10·11일 안방에서 열린 두산과의 주중 3연전을 끝으로 주말 3연전을 쉬어가게 된 KIA는 12일을 휴식일로 잡았다. 선수들은 평일 달콤한 휴식을 만끽한 뒤 13·14·15일 무등경기장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휴식일이라는 변수는 마운드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11일 KIA는 두산과의 첫 경기에서 61개의 공을 던진 양현종을 제외하고 선발진까지 불펜 대기를 시작했다. 9일 선발로 나서 2회를 버티지 못하고 내려왔던 임준섭과 지난 7일 롯데전 선발로 나왔던 서재응도 4일 만에 불펜에 투입됐다.

16일 LG와의 홈경기 전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운드 총력전이 가능했다. 서재응의 경우에는 컨디션 조절 차원이기도 했다.

소사나 김진우를 시작으로 16일 선발 로테이션이 돌아가면 양현종에 이어 서재응은 4~5선발로 투입될 예정. 7일 이후 다음 선발까지 10일 이상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서재응도 불펜이 된 것이다.

선동열 감독은 "올 시즌은 휴식일이 있기 때문에 투수 특히 선발 관리가 어렵다. 서재응의 경우 11일 나오지 않으면 쉬는 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불펜에 대기 시켰다"며 "휴식기가 처음인데 다음 로테이션은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먼저 내보내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12일 선발 예정이었던 김진우는 어깨 근육통으로 투입을 미뤘다.

선 감독은 "어깨가 뭉쳤다고 한다. 던지려고 하면 던질 수도 있는 상태라고는 하는데 초반에 무리할 필요가 없어서 등판을 미루게 했다"고 밝혔다.

KIA는 달콤한 휴식과 함께 마운드 재 정비의 시간도 벌었다. 어깨 통증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던 에이스 윤석민이 궤도의 컨디션을 보이며 출격 준비를 끝냈다.

10일 완벽하게 하프 피칭을 마무리한 윤석민은 14일께 다시 피칭을 소화한 뒤 16일 시작되는 LG와의 홈경기에서 실전 투입이 될 예정이다.

KIA가 적절한 타이밍에 휴식기를 맞는 것에 반해 두산은 '휴식기 일장'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잠실로 복귀했다.

추운 날씨 속에 9·10일 모두 4시간이 넘는 경기를 치른 두산은 11일에는 휴식기를 앞둔 KIA의 총공세에 시달렸다. 12일부터는 휴식기를 끝낸 롯데와의 승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임준섭

광주 첨단고등학교(교장 전상훈) 볼링팀이 전국 고교부 최강의 경기력을 뽐냈다.

광주 첨단고 볼링팀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대구 삼우볼링장에서 열린 '제18회 대구광역시장기 전국 남녀 볼링대회'에서 금 2(개인종합·3인조전), 은 2(개인전·마스터즈), 동메달 1개(3인조전)를 획득, 남고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국가대표 상비군인 김한웅(3년)은 개인전과 2·3·5인전 기록을 종합한 개인종합과 3인조전(금메달)을 비롯해 개인전(은), 마스터즈(은)에서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김한웅은 11일 열린 마스터즈 경기에서 9게임을 겨뤄 총2259점(평균 225.9)을 기록, 2위를 차지했다. 또 앞서 열린 3인조전에서도 김한웅은 이강민·박준민(이상 3년)과 조를 이뤄 총3869점(평균 214.9)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이시영(3년)·우석·김영은(이상 2년) 조는 3위를 차지했다. 이번 경기에서 김한웅(개인전)과 백종운(3인조전)이 퍼펙트(300점 만점)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김한웅은 지난 7일 열린 개인전에서도 6게임을 치러 총 1490점(평균 248.3)으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볼링팀을 지도하는 국가대표 출신 이승우 코치(47)는 "이번 대회는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 근성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창단한 첨단고 볼링팀은 지난해 5월 열린 대한 볼링협회장배에서 전국최초로 전 종목(6종목) 금메달을 수상하고, 전국체전에서 5년 연속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7개 대회 42개 금메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개를 씹쓸이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약속 지켜준 선배님 고맙습니다”

LG 김기태 감독 광주일고 후배들에 방망이 30자루 선물



LG 김기태 감독이 광주일고 후배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11일 광주일고 야구부에 선물 보따리가 전해졌다. 까마득한 대선배 LG 김기태 감독이 보낸 방망이 30자루였다. 700만원 상당의 물품이다. <사진>

김기태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고 광주일고 김선섭 감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며 모교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전했다.

후배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김기태 감독은 11일 고급 방망이를 모교로 보내 약속을 지켰다.

이번 주말 인상고 그리고 전주고와 주말 리그 2경기를 앞두고 있는 광주일고에는 든든한 선물이 됐다.

프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쟁한 선

배들이 많지만 후배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이들이 많지 않아 광주일고의 현실은 ‘풍요속 빈곤’이다. NC 이호준, 넥센의 김병현, LG 정성훈이 조용히 지원에 나서신 정도다.

그나마 올 시즌 프로구단의 두 사령탑이 후배들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면서 큰 도

움이 됐다.

김기태 감독에 앞서 지난 가을에는 광주일고 출신의 넥센 영점 감독이 사령탑에 오른 뒤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며 ‘똥근 기부’를 하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말말말

▲많이 돌리거나 하면 덜 춤치=김종국 3루 주루 코치, 10·11일 4시간의 할부가 벌어졌지만 홈으로 들어가는 주자가 많지 않아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퇴장시킴까봐=선동열 감독, 10일 경기 도중 주심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이날 이용규가 불 관정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다. 선 감독은 “이용규가 너무 억울한 표정으로 항의를 하는데다 혹시 퇴장이라도 당할까봐 걱정이 돼 나갔다”고 웃었다.

▲여기가 항상 전쟁이지=전쟁나는 거냐고 심각한 표정을 짓던 김상훈, 그라운드가 먹고 먹히는 전쟁터라.

▲절실하니까요=1할대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안치홍, 타격 폼을 바꾼 이유를 물어보자, 손을 높게 올리는 타격 폼으로 변화를 시도했던 안치홍은 부진이 길어지자 원래의 폼으로 복귀했다.

▲씨를 뿌려서 키웁니다=KIA 프런트, 신축구장에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잔디를 아예 심어서 키운다.

▲몇 년 차냐?=벌써 7년차라는 소리를 들은 양현종, 지나가던 신인 박준표를 붙잡고,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최고의 공격 침병

출루율 0.511 내셔널리그 2위...타율은 9위

‘추추 트레인’ 추신수(31)가 미국프로 야구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에서 ‘최고의 공격 침병’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지난 10일(한국시간)까지 9경기를 치른 추신수는 내셔널리그(NL)에서 타율(0.371) 10위, 출루율(0.511) 2위, 장타율(0.686) 9위, 안타(13개) 공동 4위, 득점(10개) 공동 2위 등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아직 도루가 1개밖에 없어 특유의 빠른 발은 본격적으로 선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밖의 부문에서는 공을 고르는 예리한 눈부터 실투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고 힘 있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판치력까지 톱타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 침병으로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높은 출루율이다. 추신수의 출루율은 NL 전체를 통틀어 칼 크로퍼드(LA 다저스·0.531) 다음으로 높다.

기본적으로 타율이 높은 데다 전체 공

동 10위에 해당하는 5개의 볼넷을 골라냈다. 몸에 맞는 공은 벌써 5개나 기록해 2위 그룹(2개)을 벌칙이 따돌리고 압도적인 1위다.

그만큼 상대 투수들이 몸쪽 공을 자주 던지며 추신수의 타격을 극도로 견제하고 있다는 증거다.

몸에 맞는 공으로 얻지 부상에 시달린 기억이 있음에도 추신수 역시 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공격에 나서면서 역으로 상대 배터리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5일 LA 에인절스전에서 1회 선두타자로 나와 초구를 공략해 마수걸이 홈런포를 만들어낸 데서 보듯이 공을 잘 고르면서도 실투가 들어오면 여지없이 방망이를 날카롭게 휘두른다.

지나치게 많은 사구로 인한 부상 위험에 대비하고, 아직 완전히 보여주지 못한 빠른 발까지 예열을 마친다면 신시내티의 공격 길목은 앞으로 추신수 덕분에 거침없이 열릴 수 있다. /연협뉴스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 웨딩 이벤트

저희 신양파크호텔에서는 대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저희 호텔에서 결혼을 해주신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웨딩 멤버십 카드인 신양 히니문 카드를 발급하여 저희 호텔의 평생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객실이용시 40% DC (금토공휴일 전일 30% DC)
-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 가족모임(동반자, 교회원 등) 각종 세미나 등(50명 이상 행사 시 현수막, 케이크 서비스)
- 작게 가족 웨딩 시 10% DC 휘트니스 시우나 이용시 40% DC
-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시 50% DC (단, 본인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제과 전 품목 20% DC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



New 멤버십 특별모진! 휘트니스 Gold 멤버십, First class 포시즌 멤버십 신양파크호텔의 품격있는 VIP 로 모십니다.